

위대한 믿음속에 선두마차는 힘차게 내달린다

우리 나라 과학기술교육의 최고전당이며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실현에 크게 이바지하고있는 그 이름도 자랑스런 김책공업종합대학,

70 여년전 자기의 창립을 온 세상에 선포한 그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대학에서는 학생들을 혁명성이 강하고 높은 탐구능력과 응용능력을 지닌 창조형의 인재들로 키우기 위한 사업에서 자랑스런 성과를 이룩하였으며 세계적인 과학교육발전추세와 공과대학의 특성에 맞게 학과목들을 새로 내오고 공학수재교육과 원격교육체계를 적극 받아들여 과학기술교육의 질을 높이는데서도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다.

대학의 과학연구집단이 경제강국건설의 주요전구들을 종횡무진하면서 절박한 과학기술적문제들을 해결하여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을 강화하는데서 이룩한 성과들은 또 얼마인지 모른다.

이 모든 성과는 김책공업종합대학은 나라의 경제를 추켜세우고 과학기술을 끌고나가는데서 선두마차라고 하시며 크나큰 믿음과 사랑을 돌려주신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세심한 령도의 결과이다.

잊지 못할 2018년 9월 창립 70돐을 뜻깊게 맞이하는 김책공업종합대학을 찾으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김책공업종합대학은 우리 나라 과학기술교육과 인민경제의 자립적발전, 국방력강화에 커다란 공헌을 해온 대학이라고, 이 영예로운 대학의 창립 70 돐을 맞으며 교원, 연구사들을 직접 만나 축하하게 된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과 미래를 위하여 교육과학연구사업에 헌신분투해가고 있는 대학의 전체 교원, 연구사들에게 우리 당과 정부를 대표하여 축하의 인사를 드린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과학기술강국, 인재강국 건설에 관한 우리 당의 전략적구상을 관철하는데 있어서 김책공업종합대

학이 차지하는 위치와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대학의 교원, 연구사들이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하자!》**라는 구호를 더 높이 들고 나라의 과학기술발전과 경제건설을 힘있게 견인하는 선두마차, 기관차가 되리라는 크나큰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나라의 과학기술발전과 경제건설을 힘있게 견인하는 선두마차, 기관차!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뜻깊은 말씀을 받아안은 대학의 일군들과 교직원, 학생들은 김책공업종합대학을 나라의 공업기술부문의 모체대학으로 내세워주시며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던 위대한 수령님들의 자애로운 모습을 또다시 뵈옵는것만 같았다.

70 여년전 평양공업대학(당시)창립이 온 세상에 선포되던 그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평양공업대학의 창립은 우리의 과학자, 기술자들로 나라의 과학기술과 경제를 더 빨리 발전시킬수 있다는것을 온 세상에 선포한것으로 된다고 뜻깊게 교시하시였으며 전후의 어느날에는 복구건설을 해야 할 일을 생각하니 기술간부양성사업을 담당수행하고있는 김책공업대학(당시)에 나와보는것을 잠시도 미룰수가 없어서 오늘 이렇게 동무들을 찾아왔다고 하시면서 복구건설을 위한 과업과 방도들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것을 해내는것이 김책공업대학이라고 하시며 과학기술인재들을 더 빨리, 더 많이 키워내는것으로 사회주의공업화를 위한 사업에서 자기의 사명과 임무를 다하도록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그 믿음과 사랑을 안으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새 세기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교육강령을 편성하는 문제로부터 교수안작성과 과학기술교육내용의 현대화실현, 기술과목교수에서 정보기술, 컴퓨터의 응용비중을 높이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교육사업을 위대한 수령님의 의도대로 진행해나가도록 보살펴주시였다.

하기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마음속에 김책공업종합대학은 우리당이 제일 믿고 내세우는 대학중의 대학으로 소중히 자리잡고있는것이다.

선두마차, 이 고귀한 칭호에는 혁명과 건설의 년대들마다 언제나 그러했던것처럼 김책공업종합대학이 나라의 경제와 과학기술발전을 앞장에

서 이끌고나가기를 바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믿음과 기대가 어려있다.

김책공업종합대학에 대한 믿음이 크시였기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인재들을 육성하는데 한생을 바쳐가는 교육자들을 위해서는 아까울것이 없다고, 대동강반에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을 500 세대 더 짓고 봉사시설들도 꾸려주게 되면 옹근 하나의 거리가 형성될것이라고 하시며 새로 일떠서게 될 거리의 이름을 《미래과학자거리》로 명명해주시는 뜨거운 사랑과 은정을 안겨주시였다.

창립 70 뛴을 맞이한 김책공업종합대학을 찾으시였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김책공업종합대학의 과학교육사업을 계속 강화발전시켜 나가는데 힘을 집중하여야 경제강국건설의 열쇠도 손에 확고히 틀어잡을수 있다고,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교육의 질적수준을 끊임없이 높여 학생들을 혁명성이 강하고 높은 탐구능력과 응용능력을 지닌 창조형의 인재, 붉은 과학자들로 키워낼데 대한 강령적인 과업들도 제시해주시고 김책공업종합대학을 세계일류급의 대학으로 전변시키는데가 우리 당중앙의 의도이고 혁명의 요구라고 하시면서 대학의 교육조건과 환경, 교육내용과 방법을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도 밝혀주시였다.

정녕 김책공업종합대학의 력사는 창립된 때부터 절세위인들의 대해같은 믿음으로 이어진 긍지높은 력사였다.

흐르는 세월과 더불어 더해만 지는 절세위인들의 크나큰 믿음, 바로 여기에 김책공업종합대학이 혁명과 건설의 년대들마다 자기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여올수 있는 근본비결이 있는것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손길아래 나라의 과학기술 발전과 경제건설을 힘있게 견인하며 선두마차는 오늘도 힘차게 내달리고 있다.